

광주시, 정화수로 더위·미세먼지 잡는다

환경공단 운용 하수처리장 3곳 하루 66만톤 살수·조경 재사용 "적합 판정 물이니 안심하세요"

광주시가 깨끗하게 정화된 하수로 도심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폭염도 잡는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은 7일 "광주시 관내 3개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깨끗하게 정화된 하수 처리수를 도로 살수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폭염에 따른 도심 온도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공공 하수처리시설인 제1·2하수 및 효천하수처리장 3곳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와 도로 세척 및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일부터 무상 제공하고 있다.

폭염이 깊어지고 있어 무작정 상수원을 사용할 수 없고 더위에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하수 처리수를 도로 살수 등에 이용한 것이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정화되는 66만톤 이상의 하수처리수는 광주천의 건천화(乾川化)를 막고 광주천과 영산강 내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광주시 서구가 7일 광주환경공단으로부터 공급 받은 정화된 하수 처리수를 도로에 뿌리고 있다.

앞서 환경공단은 공인기관인 광주시보 건강환경연구원에 시험 검사를 의뢰, 하수처리수를 세척·살수 용수로 사용하는데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자치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등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하수처리수는 어제부터 폭염대응 살수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미세먼지를 잡는 것은 물론 도심 속 열기를 식혀주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절기 폭염 시 하수처리수를 활용한 도로 살수는 노면의 열을 낮추는 효과와 더불어 수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상수도의 사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또 장기간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상수원인 주암댐의 물을 아껴가뭄에 대비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 주암댐의 저수율은 43.59%(2018.8.6.기준)이다.

하절기 아스팔트 도로에 물을 뿌려 열을

식하면 도로와 주변 온도를 2~3℃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광주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도로면 변형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을 기대된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 살수 등을 통한 도로면 미세먼지 제거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분진제거 농도는 67% 이상, 물질소 후 수질 오염농도는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환경공단 안용훈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세계 평균의 1/6 수준으로 물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며 버려지는 수자원인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해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광주 대표 환경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환경공단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루 66만여 톤의 생활하수는 고도처리 방식으로 처리되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등을 법적 기준치 아래로 완벽하게 정화해 영산강 등에 방류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버스킹·옛놀이...알차게 돌아온 '달빛걸음'

동구, 10~11일 개최

광주시 동구가 지난 4월에 이어 오는 10~11일 야간문화향유 프로그램 '2018년 하반기 문화제야행 달빛걸음(사진)'을 개최한다.

7일 동구에 따르면 '달빛걸음'은 10~11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옛 전남도청과 서석초등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야행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 '달빛소나타'는 10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가수 신희범의 축하공연 및 토크콘서트, 달빛투어 등으로 한여름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옛 전남도청과 서석초등학교 일원에서

는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달빛 버스킹', 빛의 화가 오지호 화백을 테마로 한 시대거리극 '광주의 빛', 추억의 옛놀이를 체험하는 '달빛전통마당', 문화해설사와 역사공간을 둘러보는 투어프로그램 '달빛산책', 문화제 예코백 만들기 '달빛공방' 등이 진행된다.

또한 평상시에 관람이 힘들었던 전남도청 옛 본관, 전남도청 회의실 등 역사문화공간을 문화해설사와 둘러보는 스토리텔링 투어 '달빛산책'도 마련했다.

한편, 이 행사는 동구가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문화제정 공모사업에 선정돼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상반기 달빛걸음에는 관람객 4만여명이 참여했다. 문의 062-608-3932-3.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청렴 소통으로 광주 복지 힘쓸게요"

복지재단 청렴서약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현) 지난 6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홍보관에서 8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했다.

이날 서약식은 재단 임·직원이 함께 모여 청렴실천을 다짐하고, 자율적인 청렴활동을 유도하고 반부패 청렴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전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낭독을 통해 어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도 받지 않으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단이 될 것을 다짐했다. 또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효과에 대한 다뤄멘터리 영상도 시청했다.



광주복지재단 임직원들이 청렴 서약을 하고 있다.

장현 대표이사는 "민선7기 핵심시정가치인 혁신 청렴 소통에 발맞춰 마련했다"면서 "양 타운과 복지관 등 4개 시설은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6월부터 재단에서 위탁중인 산하시설과 함께 반부패 청렴추진단(T/F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기관 간 협업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마당극 즐기고 보물 찾고... '천년고찰 원효사' 체험 프로그램

북구, 18일~10월27일

광주시 북구는 7일 "오는 18일부터 10월까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무등산의 천년고찰 원효사에서 전통 산사(山寺)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통 산사(山寺)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이 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적 정신유산을 대중화·세계화해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북구가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900만원을 지원받았다.

북구는 '원효사, 무등산을 품다Ⅱ'를 주제로 무등산에 위치한 원효사를 중심으로 '체험 한마당', '마당극 퍼포먼스', '무등산 보물찾기 여행'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효사 체험 한마당'은 야외 산사 앞마당 잔디밭에서 무등산 깃대종·장식용 연꽃송이 만들기, 비누로 만드는 범종과 동부도, 사찰간식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지난해 진행된 무등산 원효사 체험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당극 퍼포먼스'로는 원효사 창건설화 마당극인 '원효, 무등을 꾸꾸다'를 광주·전라도 대표 놀이패 '신명'이 나서 무등산과 원효사에 얽힌 재미난 설화와 다양한 지역 문화재를 소재로 지역특화형

공연을 펼친다.

체험한마당과 마당극은 여름빛이 더해진 고색창연한 산사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문화를 느끼며 즐길 수 있다. 일정은 오는 18일, 9월 15일, 10월 27일에 총 3회에 걸

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무등산 보물찾기 여행'은 현지 역사교사와 함께 무등산 문화유적, 원효8경을 감상하고 총장공 김덕령 장군 발자취를 거닐어보는 탐방형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 29일, 10월 13일에 2차례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펼쳐진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제 보물찾기 미션 등을 마련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희망자들은 북구 문화관광과(062-410-6617), 북구 문화의 집(062-269-1420)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한편 원효사에는 시유형문화재 제7호 동부도와 제15호 만수사 범종, 시기남물 제21호 제철유적, 시문화재자료 제15호 풍암정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으며, 대웅전 맞은편 누각인 회암루에 오르면 가까이는 노송과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 의상봉, 그 오른쪽에 우뚝 솟은 윤필봉, 멀리 정상인 천왕봉의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계약서 많이 써서 꼭 돈벌어야 하는 분! 열정이 남다른 중개사님, 실장님! 딱! 세분만 모십니다.

(주)가은부동산 중개법인
연락처 010-2800-3589

